**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수요일팀]독수리 – 조0연**

1. **저자소개**

저자: 코너 우드먼

 저자 코너 우드먼은 1974년 아일랜드 태생으로 맨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아더 앤더슨, 에른스트 앤 영 등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트레이더로 일했다. 하루에 100만 원을 넘게 버는 고액 연봉자였지만 인간미 없는 숫자 놀음에 환멸을 느끼고 전 세계 상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결심한다. 살던 집을 처분하여 2만 5000파운드(약 5000만 원)를 마련하고, 아프리카 수단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4대륙 15개국을 누비며 물건을 사고파는 세계 일주에 나선다. 경제를 책으로 배운 그에게 세계 시장은 결코 녹록한 곳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갈고 닦은 베테랑 상인들의 협상 기술은 그가 대적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고, 고비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이 터져 곤경에 빠졌다. 수단에서 낙타를 구입하려다가 스파이로 몰려 감금될 뻔했고, 멕시코에서는 서핑보드를 팔려다가 익사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어선을 타고 나가 3일 밤낮을 고생했는데 고작 150엔(약 2000원)을 버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5만 파운드(약 1억 원)를 벌어오겠다는 목표를 이뤘다. 게다가 방송과 책이 큰 인기를 끌면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는 등 애널리스트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수백억 원을 거래할 때는 몰랐던 경제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개인 투자가로 일하면서 더 재미있고 더 짭짤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

1. **책소개**

 영국을 열광시킨 TV 다큐멘터리 <80일간의 거래일주> 원작『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 경제학 이론으로 무장한 전직 애널리스트가 6개월 동안 세계를 여행하며 물건을 사고팔면서 경제를 배운 경험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키르기스스탄, 중국 등 돈이 될 만한 곳은 어디든지 갔고, 낙타에서 커피, 말, 와인, 목재까지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사고팔았다. 4대륙 15개국 베테랑 상인들과의 치열한 협상과 경쟁 속에서 살아 있는 세계 경제를 체험했고,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상상도 못했던 난관을 거쳐 나가는 과정을 통해 비즈니스와 사람을 이해했다. 5000만원으로 여행을 시작해 1억 원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그의 겁 없는 도전은 경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동시에 일상에 파묻혀 꿈을 접어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한다.

1. **감상평**

 우선 해외 여행을 한 번 나가는 것도 많은 준비와 걱정이 되는 일인데 저자는 아무런 준비없이 세계를 무대로 경제활동을 하며 여행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또한 이 세계여행은 저자가 경제학을 연구하고 아더 엔더슨과 에른스트 앤 영 등의 컨설팅 회사에서 일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다. 경제적인 분야의 지인들이 있었기에 오지에서도 인맥을 이용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며 저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결단력 이라고 생각한다. 적은 돈의 투자도 아니고 모든 국가 모든 품목이 첫 도전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큰 투자를 하였기에 성과를 얻을수 었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과연 이일을 해낼 수 있는지 걱정하고 의심하기 보단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해쳐나갔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부분은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이다.

 책과 저자를 알아보면서 저자가 ‘나는 세계일주로 자본주의를 배웠다’ 라는 책을 지필한 것을 알게되었다. 아직 책 앞부분 밖에 읽지 안았지만 돈, 경제로 돌아가는 세계에서 내가 알지못하는 빛과 그림자가 많이 존재한다고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